

‘광산뮤직ON페스티벌’ 지역 대표 축제콘텐츠 부상

시, 자치구 축제 평가 ‘A등급’
관광객 유입 등 지역경제 활력
9월 20일 황룡친수공원서 개최

광주 광산구가 새롭게 선보인 ‘광산뮤직ON 페스티벌’이 지역 대표 축제콘텐츠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역 자원과 강점을 살린 차별화된 전략·기획으로 대세 반열에 올려놓는 등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4일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뮤직ON페스티벌은 대표 축제 발굴, 낙후된 도시 이미지 탈피, 시민 참여 문화예술 향유 기반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초기 기획 단계부터 시민 주도형 축제, 지속가능성, 도시마케팅에 중점을 둔 광산구의 노력은 시작부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 연속 7만여 명의 관람객을 기록하며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냈기 때문이다.

올해 광주시의 ‘자치구 축제 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으며 떠오르는 대세 위상을 공고히 했다.

이는 2회 연속 흥행 돌풍, 지역축제의 새로운



광주 광산구가 새롭게 선보인 ‘광산뮤직ON페스티벌’이 지역 대표 축제콘텐츠로 성장하고 있다. 제2회 광산뮤직ON페스티벌.

광주 광산구 제공

모형을 제시한 성과와 성장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을 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대한민국 1호 도심 국가습지인 황룡강 장복습지와 인접한 황룡친수공원을 축제 장소로 활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광산구가 마련한 피크닉존, 물명빔명존, 돛자리존, 무대를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스탠딩존 등 다채로운 행사장 구성은 황룡강 장복습지의 드넓은 강변 경관과 어우러지며 많은 시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광산뮤직ON페스티벌은 자연 속에서 즐기는 소풍형 음악 축제로 호응을 얻으며, 시민 문화·여가 공간으로서 황룡친수공원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 상권도 축제 기간 매출이 증가하는 등 경

제 활성화 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 관광객 유입, 젊고 역동적인 도시 이미지 형성 등이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광주시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8,000만원을 지원받게 된 광산구는 ‘광주 대표 뮤직 페스티벌’ 도약을 목표로 제3회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황룡친수공원에 열릴 세 번째 광산뮤직ON페스티벌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축제 △친환경 가치를 구현한 지속가능 축제 △전국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력 축제로 추진된다.

특히 광산농악 한마당, 시민참여버스킹, 클래식 공연 등 다양성을 높이고 ‘북크닉존’, ‘뮤직 영화관’ 등 시민 목소리를 반영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시민들이 프로그램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행사장 구성도 뮤직존, 투게더존, 플레이존, 힐링존 등으로 변화를 줄 계획이다.

박병구 광산구청장은 “천혜 자연환경, 음악, 시민참여라는 3박자로 거둔 지난 두 번의 큰 성공을 발판 삼아 올해 광산뮤직ON페스티벌을 전국에서 발길이 이어지는 음악 축제의 아이콘으로 만들겠다”며 “관객과 시민 모두가 즐거운 축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봉 기자

북구, 실버뷰티 추억만들기 사업 추진

미용 서비스·장수사진 촬영

광주 북구는 어르신들의 정서적 지원을 위한 ‘실버뷰티 추억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정책으로, 구비 1,000만원을 투입해 어르신들이 현재의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할 수 있도록 ‘미용 서비스’와 ‘장수사진 촬영’을 지원한다.

먼저 ‘미용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100명에게 헤어 커트 및 염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장을 마친 어르신들의 모습을 촬영해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참여자는 행사 당일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장수사진 촬영’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에 추천한 만 75세 이상 어르신 80명을 대상으로 △헤어(커트 및 드라이) △메이크업 △한복 대여 △장수 사진 촬영 △액자 제작 등 전 과정을 지원해 어르신들의 장수사진 촬영 경험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사)대한미용사회 광주북구지회 소속 전문 미용사들이 어르신들의 머리 손질과 메이크업에 직접 참여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총 2회(6월 10일, 7월 1일)에 걸쳐 진행되고 참가비는 무료이다.

오는 10일 오전 9시 우산종합사회복지관(북구 중문로55)에서 첫 번째 행사가 열리고, 다음달 1일 오전 9시 오치종합사회복지관(북구 서하로194번길 6)에서 두 번째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은 북구 위생과 또는 (사)대한미용사회 광주북구지회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의 어르신들이 현재의 모습을 아름답게 추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뿌리이신 어르신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서구 ‘국악의 날’ 기념 ‘팔방미악’ 공연 개최

오늘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전통과 현대의 조화 공연 준비도

광주 서구가 올해 첫 시행되는 ‘국악의 날’을 기념해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드는 퓨전 국악 공연 ‘팔방미악’을 선보인다.

4일 서구에 따르면 정부는 1447년 음력 6월 5일 세종대왕이 지은 악곡 ‘여민락’이 최초 기록된 날을 따라 매해 6월 5일을 ‘국악의 날’로 지정했다.

이번 공연은 오는 5일 오후 7시께 서구 금호동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김영호 등 8명으로 구성된 ‘팔방미악’ 팀이 공연을 개최한다.

공연은 경기민요 ‘풍년가’를 인용한 새로운 가락의 ‘풍년가’와 현대 사회를 풍자한 ‘놀부가’, 피아노와 대금이 조화를 이루는 ‘새타령’, 5·18 민주광장에서 영감을 받은 ‘분화구’ 등 국악의 아름다움을 다양한 장르로 재해석한 무대를 선보인다.

국악의 날 지정 기념 공연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입장권은 네이버 ‘빛고을국악전수관’ 페이지에서 사전예매 또는 공연 당일 오후 6시부터 공연장 안내대에서 현장 구매도 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식 유튜브



PROJECT 팔방미악

2025. 6. 5(목) 19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

기획 | 레이더(광일포드) | 후원 | 062-350-4557

광주광역시 서구

국악의 물결을 띄운 유쾌한 유전 편 편!



예술인 | 김영호, 이승준, 김가영, 조재희, 최연서, 윤연서, 최옥미, 김경현

제작 | 국악문화재단(소노랩) | 예술감독·연출 | 김민우 | 조연출 | 김단비 | 지원 | 김광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또한 공연장 로비에서는 가야금 체험 등 방문객들이 직접 국악을 접하며 K-컬처의 매력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오는 7일에는 빛고을국악전수관 전시실과 연계한 주리 탐험 프로그램인 ‘빛고을 국악탐험대’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수민 기자

‘추억의 충장축제’ 동화속 한 장면처럼 펼쳐진다

개막식 10월 15일 금남로

제22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가 오는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금남로와 충장로 일대에서 개최된다.

4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세대와 국경을 초월해 세계적인 문화예술축제로 거듭난 충장축제는 2004년 제1회 광주 충장로 축제를 시작으로 올해 22회를 맞이했다.

동구는 올해 충장축제 주제 ‘추억의 동화’를 시작으로 매년 ‘추억의 ○○’ 시리즈를 선보여 축제의 지속가능성과 차별화를 동시에 사로잡을 계획이다.

앞서 동구는 지난 2월부터 다양한 논의를 거치고, 동 주민자치회·통장단·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 검토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주제를 선정했다.

부제는 ‘동화처럼 행복한 우리 이야기’다.

이번 축제에서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잠들었던 이야기들이 이 가을, 충장로를 따라 은은한 빛을 머금고 깨어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동화가 갖는 보편적 가치와 개인의 추억을 연결해 향수와 상상을 자극할 예정이다.

특히 야간에는 동화 속 신비로움을 선사하기 위해 조명 등 다채로운 연출로 볼거리를 더할 계획이다.

먼저 축제 첫날인 10월 15일은 개막쇼 ‘추억의 동화’가 금남로 메인 무대에서 펼쳐진다.

사랑, 모험, 소망, 상상이 가득했던 추억 속 동화를 되살려 환상이 가득한 새로운 동화를 펼치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둘째 날인 16일은 ‘아시아 문화의 날’로,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광주의 상징성을 반영해 아시아 각국의 문화를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해 선보인다.

주요 프로그램은 아시아 컬처 스트리트, 아시아 컬처 쇼 등이다.

17일은 ‘가족의 날’로 충장 병마리 축제, 청소년 버스킹 등 전세계가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충장 발광나이트 ‘마스크 파티’ 등이 관객과 만난다.

18일과 19일은 ‘행진의 날’로 5개 자치구 아동놀이, 초대형 바둑대회, 라이트업 퍼레이드, 불꽃놀이, 추억의 동화 대행진, 이색 자전거 레이스 대회 등이 준비돼 있다.

특히 추억의 동화 대행진에는 지역 13개 행정동이 참여해 마을 이야기에 동화를 접목하는 등

색다른 퍼레이드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퍼레이드에는 대학교 재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안무와 연출을 도울 예정이다.

축제의 대미는 불(화염)과 첨단기술(드론)을 융합한 특별한 파이어 드론쇼로 장식한다.

또한 축제 기간 동안에는 ‘제4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이 ACC 하늘마당과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동시에 열린다.

전 세계 16개국 32팀이 참가하는 국제 버스킹 경연대회에서는 총 4,000만원의 상금이 걸렸다.

올해는 본선진출팀에게 오디오가이들을 통한 음원 유통을 지원해 뮤지션들이 자신의 음악을 더 많은 대중에게 선보일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난 21년간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으로 성장해 온 충장축제가 ‘추억의 동화’라는 새로운 주제를 통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가오는 10월 동화 속 한 장면처럼 펼쳐질 특별한 축제에 광주 시민과 방문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남구 ‘행복사서함’ 운영...지역 주민 미담·추억 공유

9일부터 상반기 공모전 진행

광주 남구가 지역 주민들과 행복을 담은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 행복 사서함을 운영한다.

4일 남구에 따르면 행복 사서함은 지난 2023년부터 선보인 행복한 남구 담벼락 사업의 후속 프로젝트로, 지역 주민들의 더 다양한 행복 이야기를 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민들의 행복한 삶에 관한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게 공유하기 위해 행복과 관련한 표현의 글자 수를 300자 내외로 확대했다. 또 에세이와 일기 등 다양한 형태로 누구나 손쉽게 자유롭게 행복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형식의 제한도 없애 행복 문화가 주민들 사이에서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남구는 행복 사서함을 통한 일상의 작은 행복을 나누기 위해 6월과 9월 각각 상·하반기 공모전을 개최하기로 했다.

상반기 공모전은 오는 9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내 주변의 따뜻한 미담이나 추억, 행복을 실



광주 남구가 지역 주민들과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 행복 사서함을 운영한다.

광주 남구 제공

천했던 경험 등을 300자 이내 이야기에 담아 제출하면 된다. 글로 작성한 작품이라면 어떠한 형태로도 가능하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우수 작품 제출자에게는 10~25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추첨을 통해 공모전에 함께한 참

가자 일부에게는 소정의 기프트콘도 제공된다.

남구 관계자는 “소소하지만 깊이 있는 행복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고, 행복에 관한 따뜻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며 “행복 사서함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